

# 동티모르 사태와 상륙수부대의 성과 및 영향 연구

徐世鎬

(예비역 육군준장, 전 인도네시아 국방무관)

- 서론
- 동티모르 사태의 배경
- 한국군 상륙수부대의 파병 배경
- 한국군 상륙수부대의 활약과 의의
- 동티모르 정세 전망
- 결론

## 1. 서론

동티모르(East Timor)<sup>1)</sup>는 인도네시아 동쪽과 호주대륙 북쪽 사이의 작

1) 일반적으로 Est-Timor로 알려져 있는 동티모르의 정식 국명은 동티모르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이다. 이는 그들의 공용어인 포르투갈어 표기에 따른 결과다.

은 티모르(Timor) 섬의 일부로서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해 위치하고 있다. 두 나라는 지정학적인 관계로 과거 수 백년 동안에 걸쳐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등 서구열강의 식민지배하에서도 각각 다른 종교와 민족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가 지배해 온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에 편입되었으나 동티모르는 포르투갈 식민지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 그 후 1970년대 초, 동티모르를 점령하고 있던 포르투갈이 동티모르의 장래에 대해 뚜렷한 대비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철수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해 1975년, 인도네시아가 무력으로 동티모르를 강점했다.

그 후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는 영토적 합병이 이루어졌지만, 인도네시아와 문화적으로 차이점이 너무 많았던 동티모르인들은 인도네시아에 동화되지 않고, 끈질긴 독립투쟁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동티모르인들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따라 유엔이 개입하게 되었고, 1999년 동티모르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결정했다. 그러나 동티모르는 국가로서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의 개입으로 각국에서 파병된 다국적군이 치안을 담당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때인 1999년 10월, 한국의 상륙수부대가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동티모르에 파병되면서 ‘동티모르’라는 생소한 국명을 가진 작은 섬나라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상륙수부대의 활약은 동티모르는 물론 한국의 위상과 한·동티모르 양국의 유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동티모르 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동티모르의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동티모르 독립과정, 그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사실들과 과정을 분석한 후 이를 평가하고, 한국군 상륙수부대의 파병 배경과 그들의 역할 및 의의를 고찰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향후 동티모르와 한국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2. 동티모르 사태의 배경

### (1) 티모르 섬의 분할과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점령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와 호주대륙 사이에 있는 티모르 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만 4,609km<sup>2</sup>(남한의 1/7, 강원도의 면적과 비슷) 면적의 대부분이 열대 밀림의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동티모르 주민은 82만명(유엔, 2004년 기준)이며 주민의 90%가 콩, 커피, 벼농사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민 대다수가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는데 동티모르의 일반적인 개황은 <표 1>과 같다.

1515년, 포르투갈 선교사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티모르 섬의 크기는 전장이 450km, 폭이 60km이다. 1520년경 포르투갈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후, 특산물인 백단목을 독점해 왔으며, 1524년 섬 전체가 포르투갈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표 1> 동티모르 개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 구: 82만명(유엔, 2004년 기준)</li> <li>• 수 도: 딜리(Dili)</li> <li>• 면 적: 14,609km<sup>2</sup>(강원도 크기)</li> <li>• 공 용 어: 포르투갈어, 테툰(Tetun)어</li> <li>• 중 교: 가톨릭, 개신교</li> <li>• 평 균 수 명: 50세(여), 49세(남)</li> <li>• 주 요 생 산 품: 커피, 목단목, 원유개발 (추진 중)</li> <li>• G N P: 430\$ US(세계은행 2003년)</li> </ul>	 <p>(동티모르 지도)</p>
---	---

자료 : <http://news.bbc.co.uk/world/asia-pacific/country-profile/15081>.

그 후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던 네덜란드가 쿠판(Kupang)을 중심으로 이 섬의 서부지역을 차지하게 되자, 포르투갈과 인도네시아는 티모르 섬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 후 1893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티모르 섬을 분할 지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 결과 양국은 서티모르를 네덜란드에 양도하고, 동티모르는 포르투갈 지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그때부터 티모르 섬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 서구제국주의 국가로부터 강제로 분할된 채 식민지배를 받게 되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티모르 섬은 또 다시 타의에 의한 변혁의 기회를 맞게 된다. 당시 남방으로 진출했던 일본군은 1942년부터 티모르 섬 전체를 점령하고 1945년 항복할 때까지 지배했다. 그때 서티모르의 네덜란드인들은 대부분 추방되었으나, 동티모르의 포르투갈인들은 현지에서 도주 또는 피신했다. 그 시기에 일본군의 잔학한 통치로 인해 티모르 주민 6만여 명이 희생되었다.<sup>2)</sup>

제2차 세계대전 끝난 후 네덜란드 지배하의 서티모르는 독립과 함께 인도네시아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동티모르는 피신했던 포르투갈 식민정부 요원들이 재빨리 복귀하여 지배권을 다시 장악함으로써 계속 포르투갈 식민지로 남게 되었다. 그 후 동티모르인들은 서티모르와 영토 및 민족통합을 주장하며, 독립을 요구했으며, 그들에 의한 주민봉기가 수차례 시도되었다. 그러나 조직적인 저항체계를 갖추지 못한 동티모르 주민의 봉기는 포르투갈 식민정부에 의해 매년 진압당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본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는 동티모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후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 탈식민지화 추세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의 포르투갈 식민지 국가들이 분리되거나 독립했다. 그 같은 국제적 여건을 감안해 포르투갈은 동티모르를 독립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1971년부터

2) Julius Pour, Benny Moerdani, *Profile of A Soldier Statesman*, Jakarta, Yayasan Kejuangan Panglima Besar Sudirman, 1993, p. 316.

자치권을 부여했다. 이어서 1974년 4월, 포르투갈 스피놀라(Spinola) 군사 정부가 동티모르에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개혁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티모르 장래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동티모르인들의 독립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동티모르인에 의한 3개의 정당이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그 시기에 결성된 정당 중 ‘티모르민주동맹’(UDT)은 정치, 경제분야에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있는 상류층 주민으로 구성되었다. 또 다른 ‘티모르인민민주주의연합(APODETI)’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주들로 대부분 구성되었다. 그리고 ‘티모르사회민주주의자협회(ASDT)’는 급진적 성향가진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1974년 ‘티모르독립혁명전선(Fretilin: 후레트린)’으로 개명했는데, 그들의 정강정책은 ‘마르크스레닌혁명노선’과 유사했다.

그 후 1974년 9월, 포르투갈 스피놀라 정권이 물러나고, 고메즈(Gomez) 정부가 집권했으나 식민정책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고메즈 정부는 동티모르 장래에 대해 ‘인도네시아에 합병시키는 방안’ 또는 ‘포르투갈 정부 통제하의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인도네시아측에 제시했다. 아울러 포르투갈은 “동티모르에 별도의 공화국을 수립하는 방안은 동티모르의 경제기반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 독립이 성사되더라도 외세개입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라고 제안했다.<sup>3)</sup>

동티모르에 대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계속되는 정세악화는 인접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정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에 새로운 형태의 좌파정부가 수립될 경우, 자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크게 우려하여 포르투갈 정부에 대해 적절한 대책수립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포르투갈 정부가 동티모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도하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미국 등 서방측 국가들도

3) Julius Pour, 앞의 책, p. 321.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도를 묵시적으로 방조했다. 이에 따라 1975년, 인도네시아 국방성 정보국장 베니 무르다니(Benny Moerdani) 장군<sup>4)</sup>은 특수정보요원으로 구성된 비밀작전(일명 'Komodo')에 착수했다.<sup>5)</sup> 이 작전은 동티모르 점령을 위한 본격적인 군사작전의 준비단계로서 동티모르내 친인도네시아 동조세력을 규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한편 동티모르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 후레트린은 반대파인 티모르인민민주주의연합(APODETI)과 티모르민주동맹(UDT)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 테러를 자행하는 등 실력행사를 감행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동티모르의 중심지 딜리(Dili)의 치안상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75년 8월 26일, 포르투갈 식민정부 총독(Mario Lemos Pires 대령)이 자신의 수비대를 이끌고 딜리 북쪽 23km에 위치한 아따우로(Atauro) 지역으로 피신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로써 동티모르에서 450년 동안 지속된 포르투갈의 식민지배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동티모르는 무정부상태가 되었다.

바로 그날 오스트레일리아의 휘트람(Whitlam) 수상은 동티모르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이미 예견된 상황으로서 놀랄 일은 아니며, 동티모르의 질서 회복은 인도네시아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휘트람 수상은 1974년 9월, 수하르토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합병 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취했다.<sup>6)</sup> 그 틈을 이용해 1975년 11월 28일, 좌파성향의 후레트린은 ‘동티모르 민주공화국(DRET)’ 수립을 선포하고 새 대통령을 지명하면서 사회주의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4) 인도네시아 국방성 정보국장 베니 무르다니(Benny Moerdani) 장군은 1973년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총영사(대령)로 근무하였으며, 귀국직후인 1974년 국방성 정보국장(준장-소장)으로 임명되었고 동티모르작전을 배후에서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다. 그는 이 작전의 성공으로 수하르토의 신임을 얻은 후에 국방성 정보본부장(중장), 1983년 통합군 사령관(대장), 1988년 국방성 장관 등 요직을 역임했다. 그는 정보국장제직시 한·인도네시아 군부간 유대증진에 기여했으며 친한 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

5) Julius Pour, 앞의 책, p. 319.

6) Julius Pour, 앞의 책, p. 322.

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자 동티모르 점령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인도네시아군은 1975년 12월 7일 새벽, 국경을 넘어 동티모르의 중심지 딜리를 점령했다. 그리고 동티모르내 친인도네시아단체인 APODETI와 UDT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같은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점령 역시 사실상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변 강대국의 사전 승인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졌다.<sup>7)</sup>

1975년 12월 8일, 자카르타에서 발행되는 콤파스(Kompass)지는 ‘딜리 함락’이라는 머리기사와 함께 “육군 전략사령부 예하의 공수부대와 해병대의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듬해인 1976년 7월 16일,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동티모르를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편입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사태에 개입하기 시작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5년간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 육군 병력 247명이 전사했으며, 그중 35명은 딜리공격 당일의 희생자였다.<sup>8)</sup>

## (2) 동티모르 사태와 국제적 관심

### 1975년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 영토로 합병된 후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7) 미국 언론은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 점령한 직후인 1975년 12월, 미국 포드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이 자카르타를 공식방문한 것은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부의 동티모르 점령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http://www.fair.org/activism/east-timor-context.htm>).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의 동티모르 독립지원단체(East Timor Action Coalition South Australia)는 1999년 9월 13일 발생한 동티모르 사태와 관련,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점령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가 취한 수치스러운 승인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zmag.org/aussiereac.htm>)

8) Julius Pour, 앞의 책, pp. 334-335.

위한 동티모르 주민들의 투쟁은 날로 격화되었다. 동티모르는 무장 세력인 ‘동티모르 민족해방전선(일명 팔린틸 : Falintil)’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침략군과 항전을 계속했으나, 그들은 인도네시아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 후 명맥만을 유지해오던 팔린틸은 1979년 구스마오(Gusmao, 현 대통령)가 사령관직을 맡은 뒤 군사는 ‘동티모르 민족해방군’이, 외교는 라모스 오르타(Ramos Horta, 현 외교장관)가, 정치는 팔린틸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비밀정치조직을 구축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면서부터 보다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게 되었다.

특히 1991년 11월, 동티모르 딜리(Dili)에서 인도네시아 군에 의해 살해된 독립과 계열의 청년 세바스찬 고메스(Gomes)의 장례 2주째를 맞아 독립을 요구하는 수 천명의 시위가 발발했다. 시위군중이 고메스가 안장된 산타 쿠르즈(Santa Cruz) 묘지를 향해 행진하는 중에 인도네시아군의 무차별 발포로 271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실종되는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한 것이다.<sup>9)</sup> 그때의 사태를 계기로 외국 언론들이 ‘딜리 대학살’이라고 지칭할 정도의 참혹했던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을 보도하면서 동티모르 사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포르투갈 정부와 유엔 산하의 인권단체 등에서는 인도네시아군의 발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199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티모르 문제 아·태 국제회의’가 열려 인도네시아군의 철수와 국제 감시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적인 여론에 못 이겨 그때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동티모르 관할지역사령관 신통(Sintong) 소장을 해임했다. 그 같은 조치로 소요사태는 일단 진정되었다.

그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치안불안을 이유로 외국인의 동티모르 방문을 엄격히 통제하며 동티모르 인권문제가 외부세계로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방언론은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동티모르의 상황을 유엔과 국제사회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9) 외교통상부, “주 동티모르 한국대사관 개황자료”, p. 3.

1996년, 동티모르를 대외적으로 대표해 오던 라모스 오르타(Ramos Horta)와 동티모르의 정신적 지도자인 카를로스 벨로(Carloss Belo) 주교가 비폭력으로 동티모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함으로써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그해 7월 정치 전문가인 다르윈(Darwin)은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에 대한 영토적 통합은 달성했으나, 아직도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하면서 “동티모르는 450년 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이 인도네시아와는 판이하며, 주민 대다수가 공용어인 인도네시아 말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 원주민과 종교, 언어, 관습 등 모든 면에서 이질성을 띄고 있어 인위적인 동질화를 위해서는 보다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었다.<sup>10)</sup>

그동안 유엔의 중재로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고 있던 포르투갈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 회담이 수차례 열리기도 했으나, 성과는 전혀 없었다.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점령은 국제법과 자결권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을 비난하고 동티모르내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 후 유엔 총회는 인도네시아가 제출한 동티모르 합병 안건을 거부했으며, 동티모르인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 (3) 동티모르의 독립결정

1998년 5월,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이 사임한 후, 하비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동티모르문제 해결이 그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당시 유엔

10) 서세호, 『미래의 대국 인도네시아』, 서문당, p. 47.

은 인도네시아 하비비 정부에 대해 동티모르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군 철수를 거듭 촉구했다. 유엔의 압력이 가중되자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의 장래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에 전격 동의했다. 그 결과 동티모르의 장래에 대해 ‘인도네시아 자치 안’ 또는 ‘완전독립 안’ 등 2개 방안을 두고 유엔감시 하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sup>11)</sup> 그때 인도네시아 정부의 속셈은 그동안 동티모르에 기울여 온 경제개발 정책의 성과를 들어 대다수 동티모르 주민들이 ‘인도네시아 자치 안’에 동의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인도네시아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1999년 8월 23일, 유엔감시 하에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친인도네시아 민병대들은 주민들에게 ‘자치 안’에 투표하도록 수차례의 테러위협까지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결과는 인구의 대부분인 98.6%가 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자의 78.5%가 독립을 찬성하는 결과로 나타남으로써 마침내 동티모르의 독립이 결정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군부와 정치지도자들은 동티모르의 주민투표 결과가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나자 하비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분위기로 돌변했다. 하비비는 자국의 악화된 정치·경제적 상황과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투표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통합군사령관(위란토 대장)을 위시한 군부에서는 동티모르 지배의 기득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sup>12)</sup>

1999년 9월 4일,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2만여 명의 친인도네시아계 무장민병대는 살인방화와 약탈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독립을 지지했던 1,000명 이상의 동티모르인이 희생당하는 최대의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25만명의 동티모르 주민들이 국경 및 산악지역으로 피신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11) <http://www.zmag.org/aussiereac.htm>.

12) <http://www.news.bbc.co.uk/world/asia-pacific/2002.4.12 보도>.

이틀 후인 1999년 9월 6일, 유엔은 동티모르의 치안회복을 위해 인도네시아군의 철수와 '국제평화유지군 파병 제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9월 7일, 동티모르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자국의 최고의결기관인 국민협의회(MPR)가 독립을 승인하는 헌법개정 이전까지는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함으로써 동티모르의 치안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하비비 대통령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욱 거세게 일게 되자, 1999년 9월 12일, 유엔의 '국제평화유지군 파병제'에 대한 수용 의사를 전격 발표하고, 동티모르 내에 주둔하고 있던 군과 경찰에 대한 철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군과 경찰은 동티모르에서 철수하면서 주둔지 군 시설물과 공공건물 70% 이상을 파괴함으로써 달리시는 폐허화되었다. 이와 같이 동티모르는 점령 24년 동안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1/3인 20만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의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sup>13)</sup>

#### (4) 동티모르의 사태에 대한 평가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제점령과 동티모르인들의 수난은 주변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1970년대까지 아시아지역에서 만연했던 공산화에 대한 우려가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국가들은 베트남의 공산화에 의한 도미노식 공산화가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칠 것을 크게 우려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강제점령을 묵인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인도네시아의 영향력 등도 작용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탈냉전과 함께 공산주의 세력확장 위협이 사라지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서방측의 인권중시가 본격화된 결과 동티모르의 '인권개선과 독립'을 위한 국제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다. 반면 그 같은 국

13) 국방대학교 함참대학, 『01 UN PKF 참모 귀국보고서』 2000.1.10~2001.2.3, pp. 21~37.

제적 환경변화가 이루어졌으나 유엔 등 국제사회가 동티모르의 주민투표결과 후속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동티모르가 폐허화되는 유혈사태가 발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4)</sup>

동티모르의 독립이 결정된 후 친인도네시아 민병대들에 의해 자행된 그곳의 인권사태가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들의 만행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사태를 주도했던 동티모르 내의 친인도네시아계 민병대지도자 유리코 구테레스(Eurico Guterres)를 ‘유엔 지명수배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지원 혐의로 인도네시아 군사령관(위란토 대장), 관할지역사령관, 정보책임자 등 3명의 군 고위인사 등 18명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구했다.<sup>15)</sup>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1년 집권한 메가와띠 정부에 대해 인도네시아 군부와 연관된 동티모르 인권침해 사태의 후속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유엔사법위원회에서는 동티모르 유혈 사태와 관련 친인도네시아계 민병대 간부 등 10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33년형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인도네시아측에 통보했다.<sup>16)</sup> 그 같은 국제여론에 밀린 메가와띠 정부는 자체적으로 ‘동티모르 인권진상조사위원회(KPP-HAM)’를 설치해 인권침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관련자 전원을 자국의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재판에 회부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전문가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로빈슨(Robinson) 교수는 최근 ‘라디오 네덜란드’를 통해 ‘1999년 동티모르 사태는 인도네시아 육군이 조직적으로 민병대들을 동원, 잔학행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sup>17)</sup> 미국 의회에서는

14) 주 동티모르 한국대사관, 문화관광 홈페이지, 상록수부대(<http://info.timorleste.com>).

15) <http://news.bbc.co.uk/world/asia-pacific>(2000. 4. 17 보도).

16) <http://news.bbc.co.uk/world/asia-pacific>(2002. 1. 9 보도).

17) “Jakarta Post”지, 2005년 1월 10일자 기사.

1992년과 1999년 동티모르의 유혈사태로 인한 인권문제를 이유로 내세워 미국 군사장비의 대인도네시아 수출금지 조치와 함께 군사원조(IMET: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 Training)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sup>18)</sup> 여기에 영국정부도 가세하여 호크전투기에 대한 부품공급도 중단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민병대의 만행에 대한 유엔의 조치가 인도네시아 정부를 압박해 동티모르의 독립을 인정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은 주민투표가 어떤 방안으로 결정되더라도 반대파에 의한 혼란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그 점이 국제적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 유엔의 한계이며, 제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유엔의 역할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예방조치보다는 사태가 발생한 후 국제적 여론에 따라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 3. 한국군 상륙수부대의 파병 배경

#### (1) 다국적군 파병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전환 배경

유엔은 동티모르 독립여부를 결정하는 독립 찬반투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1999년 6월, 유엔 동티모르파견단(UNAMET: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in East Timor)을 처음으로 설치함으로써 유엔의 동티모르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때 우리나라 손봉숙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주민투표 감시를 위해 유엔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했다.

1999년 10월에는 동티모르의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동티모르의 독립이

18) "Jakarta Post"지, 2005년 1월 7일자 기사.

결정되자, 그들의 완전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과도행정기구(UNTAET :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가 설치되어 2002년 5월, 독립시까지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유엔의 조치에 따라 동티모르 과도내각이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2000년 5월, 유엔은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군의 완전철수가 이루어진 후 동티모르가 독립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엔 동티모르지원단(UNMISET : UN Mission of Support in East Timor)을 설치했다. 이 동티모르지원단의 기능은 공공행정과 사법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 유엔 민간경찰이 동티모르 경찰당국과 함께 국내치안을 담당하며, 평화유지군(PKF)이 국외안보와 국경통제 기능을 수행토록 지원하는 것이었다.<sup>19)</sup>

한편 1999년 9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병제의' 수용 의사를 밝히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영국이 제안한 '다국적군(INTERFET : International Force in East Timor) 파병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동티모르의 평화와 치안회복을 위해 '다국적군 파병'이 결정되었다.

1999년 9월 15일, 동티모르의 분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동티모르내 모든 폭력행위의 즉각 중지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동티모르의 평화안정과 유엔 동티모르파견단(UNAMET)의 임무 수행을 위한 지원보장과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통일된 지휘구조를 가진 '다국적군'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다국적군이 유엔평화유지군(PKF : Peace Keeping Force)으로 대체 될 때까지 계속 주둔한다는 결의안도 동시에 채택했다. 그 결정에 따라 동티모르의 질서와 치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국적군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주축으로 창설되었으며, 그때 한국의 상륙수부대도 참여하게 되었다.

1999년 9월 20일, 동티모르에는 15개국에서 파병된 1만여 명 규모의 다국적군 병력이 전개했으며, 동티모르 전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치안을 확보

19) 국방대학교 합참대학, 앞의 책, pp. 37~58.

했다. 그러나 국가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다국적군체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유엔에서 경비를 제공하는 유엔평화유지군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 후 동티모르 유엔평화유지군 병력은 점차 동티모르 상황이 호전됨으로써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2005년 초 기준으로 47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완전 철수했다.

한편 2005년 2월 23일,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은 동티모르의 국경관리와 훈련된 경찰력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 5월말까지 활동시킨 유엔 동티모르지원단(UNMISSET)의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토록 하고, 활동인원을 민간자문단 위주의 179명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up>20)</sup>

동티모르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해 유엔과 미국은 대표적 성공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21)</sup> 즉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원의지, 유엔 Mission에 대한 명확한 임무부여, 무장단체의 무장해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여건,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의 전문성, 국민들의 높은 일체성, 분쟁 이후 각 집단간의 보복행위 대폭감소 등의 사례를 들어 평가한 결과였다.

## (2) 한국군 상륙수부대 파병의 배경

한국군 상륙수부대의 동티모르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9년 9월 15일, 동티모르에 국제 평화유지군 파병 및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다음날인 9월 16일, 정부가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파병을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접수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이에 앞서 9월 1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인권외교를 강조해온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잔학한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동티모르 사태를 그냥 볼 수 없다.”며 동티모르의 독

20) “Jakarta Post”지, 2005년 2월 25일자 기사.

21) <http://www.mofat.go.kr/mission/emb/>

립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국제사회의 적극 개입과 평화유지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한국군의 파병의사를 피력했다.

한국군 파병 배경은 대외적 명분으로는 동티모르 독립 찬반투표 이후 독립에 반대하는 민병대에 의해 광범위하게 저질러지는 유혈학살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다국적군의 구성을 승인했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불가피하게 다국적군의 수용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2)</sup> 당시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도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한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에 전혀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평화유지군을 불가피하게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국적군을 주도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파병을 오히려 환영했다. 즉, 인도네시아 정부와 언론은 내심 다국적군의 파병을 주권침해로서 동의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수긍했으며, 다만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민병대와 동티모르 독립파간에 중립을 지켜줄 것을 희망했다.

한편 조성태 국방부장관은 파병에 앞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군부와 유대 관계를 고려해 군사사절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장(이종욱 중장)과 필자(전 인도네시아 국방무관)가 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관 위란토(Wiranto) 대장을 예방한 후, 한국군 파병계획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위란토 대장은 자신의 예하 부대원들은 동티모르 인권침해 사태에 관련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한국군 파병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군을 동티모르에 파병하게 된 대내적인 배경에는 국민여론과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다. 당시 국민여론은 동티모르의 유혈학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엔평화유지군으로서의 한국군 파병을 찬성하

22) 주 동티모르 한국대사관, 앞의 상록수부대(<http://info.timorleste.com>).

는 분위기였으나 전투부대의 참여문제는 찬반양론이 비등했다. 그 과정에서 국군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결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파병은 <표 2>와 같은 일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상륙수부대의 파병결정에 앞서 2000년 9월 13일,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계획을 발표했던 한국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파병 안을 구상했다. 그 과정에서 동티모르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파병하는 것이라면 공병이나 의무부대는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이 가능한 전투부대 파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9월 16일, <표 2>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에서 ‘제522 육군 평화유지단’ 파병을 결정했던 것이다.

파병결정 당시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단체에서 국내신문에 파병반대 광고를 실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현지 민병대

<표 2> 상륙수부대 파병 주요 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999	9. 15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한국군 파병요청 공식서한 접수(외교통상부)
	9. 16 NSC 제522 육군 평화유지단 파병 결정
	9. 19 국방부 현지조사단 파견
	9. 21 국무회의 의결, 국회 국방위 긴급의안 상정
	9. 23 국회승인, 유엔에 파병계획 통보
	9. 30~10. 9 상륙수부대 파병, 오스트레일리아 타운즈빌 전개
	10. 16~10. 22 상륙수부대 동티모르 전개 (동티모르 동부 라우렘지역 로스팔로스시)
2000	2. 1 유엔평화유지군(PKF)으로 전환
2002	1. 13 서부 오쿠시지역으로 이동(요르단군 주둔지역 인수)
2003	10. 23 상륙수부대 전원 철수 완료

자료 출처: 국방대학교 합참대학, 『01 UN PKF 참모 귀국보고서』, 2000. 1. 10~2001. 2. 3; 같은 제목, 2002. 1. 22~2003. 12. 31 내용 요약정리.

와의 교전가능성과 대인도네시아 관계, 교민 안전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대규모 전투병 파병 대신 수정안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은 물론 지원 병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라도 보병부대의 파병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결국 9월 23일, 여·야 국회의원 289명이 국회토론에 참가했으나 표결시 야당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160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가해 158명의 찬성으로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상륙수부대의 임무는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난민호송 등 인도적 구호활동지원과 유엔 동티모르 파견단의 임무수행을 지원, 보호하는 것을 정해졌다. 파병인원은 총 444명(상륙수부대 436명, 유엔평화유지군사령부 참모 8명)으로 <표 3>과 같이 파병국가 중 9위의 병력이었다.

<표 3>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파병국가별 병력 현황

국 가 별	병력 수	점유율(%)	순위
계	7,877	100	
오스트레일리아	1,602	20	1
파키스탄	773	10	2
포르투갈	766	10	3
요르단	719	9	4
타일랜드	708	9	5
뉴질랜드	665	8	6
필리핀	539	8	7
방글라데시	544	7	8
대한민국	444	6	9
케냐	250	3	10
피지	191	2	11
네팔	159	2	12
기타	463	6	

자료 출처: 국방대학교 합참대학, 『01 UN PKF 참모 귀국보고서』, 2000. 1. 10~2001. 2. 3, p. 88.

## 4. 한국군 상록수부대의 활약과 의의

### (1) 상록수부대의 주요 활동 및 성과

상록수부대는 1999년 10월 16일, 동티모르 동부 라우뎀 지역 로스팔로스 시 일대에 전개한 이후 2001년 1월 13일, 요르단군이 주둔하고 있던 서부 오쿠시 지역을 인수해 2003년 10월 23일 철수할 때까지 주둔했다.

그 과정에서 상록수부대는 헌신적이고 성실한 임무수행자세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국적군의 왕(현지어: 말라이 무뎌)’ ‘친구의 나라(현지어: 마록 꼬레아)’로 불렸으며, 특히 현지유엔기구로부터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국가 중 가장 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같은 상록수부대의 활동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치안유지와 난민 안전귀환을 위한 지원활동이었다. 상록수부대가 전개했던 초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상호 적대적이었던 주민들을 통제해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상록수부대는 적대세력에 대한 사전 면밀한 분석으로 적대세력이 지역 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각종 위협요인에 대해 적극 대처함으로써 타 지역과 달리 조기에 안정을 되찾았다. 이와 같이 상록수부대가 책임지역이었던 라우뎀 지역에서 조기에 안정을 회복하게 되자 주민들이 적극 호응하면서 8,500여 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조기에 귀환시키고, 지역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

둘째, 수해복구 지원이었다. 동티모르는 상록수부대가 라우뎀 지역에 주둔하고 있을 때인 2000년 5월과 오쿠시 지역으로 이동한 후인 2001년 6월, 동티모르에는 두 차례에 걸쳐 대홍수가 발생했다.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맞게 되자 유엔 행정기구마저도 손을 쓰고 있지 못할 때 상록수부대는 고립 인원 구출, 이재민 수용 등에 적극 나섰다. 아울러 주요 교량, 도로 등 작

전수행에 긴요한 보급로 복구를 위해 한국에서 자재를 긴급 수송해 짧은 시간 내에 계획했던 모든 복구를 완료했다. 당시 긴급재해 상황에 대해 신속하며 일사불란하게 조치하는 상록수부대의 활동상황에 감명을 받은 동티모르 정부 당국은 상록수부대의 재해조치 모델을 동티모르 정부의 재해조치 모델로 삼았다.

셋째, ‘블루엔젤(Blue Angel)’ 민사작전의 성과다. 블루엔젤 작전은 상록수부대가 실시한 민사작전의 명칭이다. 베트남전쟁에서 민사작전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있던 한국군은 주민들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민사작전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 다른 나라의 다국적군에게서는 볼 수 없는 활동이었다. 상록수부대는 블루엔젤 작전의 일환으로 격오지를 찾아다니는 의료봉사 활동, 의식주가 어려운 난민구호 활동, 농기구 수리, 이발, 영화상영 등을 통한 주민계몽 활동을 수행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지주민들로부터 ‘다국적군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넷째, 오쿠시 지역 동티모르 국경 확인 작전이었다. 오쿠시 지역은 서티모르 지역내에 고립된 서울시보다 약간 넓은 면적의 동티모르 영토였다. 이에 따라 삼면이 인도네시아가 통치하는 서티모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국경분쟁의 소지가 그만큼 컸다. 이에 따라 상록수부대는 포르투갈과 네델란드가 합의해 세운 경계 표식주를 찾기 위해 116km에 달하는 국경선을 샅샅이 확인한 결과 150여 개에 달하는 경계 표식주를 모두 발견해 서티모르와 동티모르의 국경선을 획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sup>23)</sup>

다섯째, 주민친화 활동이다. 상록수부대는 작전 중에는 물론 가용시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찾아 지원하고, 시설을 보수해 줌으로써 면학의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에서 경험했던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으며, 태권도를 전파해 심신수련에도 기여하는 등 곳곳에 상록

23) 상록수부대 제1진 지원대장, 제8진 단장 김사진 중령 인터뷰 결과, 2005. 7.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 2부에서 면담.

수부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sup>24)</sup>

## (2) 상륙수부대 활동의 의의

동티모르에서 4년여에 걸친 상륙수부대의 활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한·동티모르 양국의 유대강화에 초석을 놓았다. 동티모르에 군대를 파병한 다국적군 파병국가는 물론 관심있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군을 따라 배우려는 문의가 쇄도했다. 또한 구스마오 동티모르 대통령은 “주민을 진심으로 위하고, 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한국군부대에 동티모르인을 대표해 감사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상륙수부대 파병과 활동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의 이미지 구축이다.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자유우방의 도움으로 유사 이래 최대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 후 한국군 전투부대가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어 자유를 위해 싸웠고, 두 번째로 동티모르에 파병되었던 것이다.

둘째,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수행과 준전시지역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귀중한 경험이었다. 한국군 전투부대는 베트남파병 이후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해외파병 경험을 가진 요원들이 대부분 군문을 떠나 있었다. 그 같은 여건에서 파병된 상륙수 부대가 귀중한 해외파병을 경험함으로써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장차 더욱 빈번해질 해외파병의 귀중한 경험을 획득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이 이라크전쟁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활동에 귀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셋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한국의 국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파병초기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등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았으나 상륙수부대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은 그 같은

24) 국방일보, 2003. 10. 23, 8면.

우려를 깨끗이 불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동티모르 관계는 물론 한·아세안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던 것이다.<sup>25)</sup>

## 5. 동티모르 정세 전망

### (1) 동티모르 정세 개요

1999년 8월 23일, 주민투표로 동티모르의 독립이 결정된 후 2000년 7월, 동티모르 과도내각이 유엔소속 관리 4명과 동티모르인 5명으로 구성되면서 동티모르 독립국가 정부 구성을 위한 공식조직으로 출범했다. 이어서 2001년 3월, 동티모르 민족평의회(의장 구스마오)에서 제헌의회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의 이행문제와 관련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총선결과에 따라 지역구대표 13명, 비례대표 75명 등 총 88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후레트린이 원내 제1당으로 55석을 차지했다. 제헌의회는 독립과 동시에 임기 5년의 동티모르의 초대의회로 전환되었으며, 제2대 의회부터는 현재의 88석에서 52~65석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어서 2001년 9월, 제헌의회가 공식출범했으며, 전원 동티모르인으로 구성된 2차 과도정부 내각이 발표되었다. 2002년 3월에는 제헌의회에서 헌법 제정을 완료했다. 그리고 2002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 구스마오(Gusmao)가 82.7%의 지지를 받아 5년 임기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2002년 5월 20일 동티모르 독립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2002년 5월 20일, 독립을 선포한 동티모르(Timor-Leste)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2002년 9월, 191번째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한 것을 비롯해

25) 주 동티모르 한국대사관, 앞의 상록수부대(<http://info.timorleste.com>).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 아세아 개발은행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어 ASEAN 회원국들과 국교를 수립했다. 독립선포 후 유엔 과도행정기구(UNTAET)는 국가건설과 치안안전을 위해 유엔 동티모르 지원단(UNMISSET)으로 개편되어 2005년 5월까지의 활동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다국적군 철수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국경지역 안보, 사회치안문제 등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일본, 포르투갈 등 국가들과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부터 지원 및 보호역할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 이후 동티모르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간 동티모르의 보호막 역할을 해 온 유엔의 철수로 인해 잠재해 있던 정치·사회적 문제점들이 점차 노출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폭력과 내전에 시달려온 동티모르 주민들에 대한 평화분위기 조성과 국민들의 정치공감대 형성, 지도부 조직문제들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동티모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방위군은 조직적인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경경비에 한계가 있으며, 서티모르와 접경지역에서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동티모르 방위군은 2001년 2월 독립과 무장조직인 팔린틸 요원 650명을 중심으로 창설되었으나, 장차 정규군 1,500명, 예비군 1,500명 규모로 각각 증원예정이다.<sup>26)</sup>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는 정상회담을 통해 각료급 공동위원회(Joint Ministerial Commission)와 국경위원회(Joint Border Committee)를 설치 운용하여 국경문제에 대한 합의도출과 함께 관계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는 티모르(Timor)해 협정을 타결함으로써 티모르 해 석유, 가스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국가건설에 필요한 자원조달이 향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티모르 경계는 1999년 9월 동티모르사태 발생으로 붕괴된 상태였으며,

26) 주 동티모르 한국대사관, 앞의 자료, p. 14.

커피 생산위주의 농업국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동티모르 인구 약 90만명 중 1/3이 구매력이 없는 산간오지에 거주하고 있어 시장규모가 협소하다. 그러나 동티모르 경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유엔평화유지군의 지원으로 2000~2001년 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사태발생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02년 독립 이후 유엔의 단계적 철수계획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석유, 천연가스 로열티 수입이 본격화되는 2005년 이후부터 회복세로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2005년 티모르해 유전개발 수익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독립이후 경제적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동티모르의 경제발전은 유전개발에 따른 로열티수입(20년간 30억 달러 예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제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sup>27)</sup> 2004년 유엔평화유지군 철수 이후 정치적 불안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 등 우방국에 힘입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티모르는 노동력의 미약, 저생산성, 고 물류비용, 시장규모의 협소,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등으로 제조업분야의 투자환경이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토지소유권개념의 확립, 노동법제정 등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장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동티모르와 주변국

포르투갈은 450년간 동티모르에 대한 식민지배 결과로 종교적인(가톨릭)

27) 주 동티모르 한국대사관, 앞의 자료, p. 16.

면에서 친포르투갈 정서가 국민의식 속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상당수 동티모르인들은 포르투갈의 식민지배에 의한 피해의식보다도 그들을 후견국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

동티모르의 제헌 헌법에서도 포르투갈어 사용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독립과 동시에 포르투갈어 사용국가 연방에 가입하는 등 친포르투갈 정책을 기본 외교정책으로 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포르투갈은 동티모르에서 포르투갈어 확산보급을 위해 다수의 교사를 파견하는 등 교육문화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동티모르 관계는 인접국이면서 가장 긴밀하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외교백서는 대동티모르 정책목표로 동티모르가 외부간섭과 국내불안 없이 명실상부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티모르가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동티모르에서 경제적 이익추구보다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의 완충역할로 역내 안정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동티모르로서는 이들 국가들과의 역학관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3국은 초국가적 이슈 및 경제교역, 관광 등 분야 협의를 위해 3국 외무장관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다국적군과 유엔평화유지군을 주도했으며 동티모르의 국방 및 경찰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동티모르 국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나친 영향력 증대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관계는 점차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메가와띠 대통령의 동티모르 방문(2002. 5 독립선포시)과 그 후 구스마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각료급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건설적인 관계구축을 위해 적극 노

력하고 있다. 육상 국경협상은 거의 타결된 상태이나 해상 국경협상은 육상 국경협상 타결 이후에 추진하기로 합의되었다. 동티모르내 인도네시아인 소유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측간 입장차가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나 동·서티모르 국경지역 공동시장 개설에 합의했다.

한편 동티모르 난민 25만명이 동티모르 사태로 인해 이를 피하기 위해 서티모르 등으로 피난했다. 이들 난민들 중에 22만 4,000명은 2002년 1월까지 동티모르로 귀환했으나 잔여인원은 미귀환 상태로써 대부분 전 민병대, 군인, 경찰, 공무원 등으로 독립반대파들이다.

유엔 산하 난민구조단체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난민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귀환을 지원해 왔으나 2002년 말까지 활동을 종료하고 더 이상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후 구스마오 대통령은 수차례 서티모르 난민촌을 방문하여 난민들에게 관용의 태도를 보이며 귀환을 독려했다.<sup>28)</sup>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에 대한 적대감은 없으나, 장차 인도네시아의 국내정치 환경변화에 따라 양국관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한편 동티모르가 대외교역과 교류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를 경유해야 함으로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그리고 아세안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가입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1942~45년간 동티모르에 대한 식민지배 경험이 있어 동티모르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유엔평화유지군에 공병대를 파견했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도로, 항만, 수자원 등 분야에 6,0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등 최대 지원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에 위치하고 있는 동티모르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오스트레일리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8) 주 동티모르 한국대사관, 앞의 자료, p. 7.

### (3) 동티모르와 한국

한국의 동티모르 지원은 1999년 9월 APEC정상회의(뉴질랜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원의사를 직접 표명했으며,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역설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군지도자들을 설득하여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지원의사를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동티모르 독립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선거관리 참여 등을 지원했으며, 동티모르 개발지원을 위해 1999~2003년간 총 300만 달러, 1999년 난민구조 활동기금으로 25만 달러, 동티모르 신탁기금으로 20만 달러, UNTAET Trust Fund 40만 달러, 2001~2002년간 60만 달러, 독립기념관 건립기금으로 120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특히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4년간에 걸친 상록수부대의 동티모르 파병은 신생독립국 동티모르와 관계증진의 발판 구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참가하여 자유우방국들과의 신뢰구축과 국제사회에 한국군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중요한 파병 성과 중의 하나이다.

상록수부대는 한국군의 해외파병부대로서 긍지를 갖고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면서 기본임무인 국경선 통제, 치안확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아울러 주민진료와 구호품전달 등 인도적 지원활동과 현지주민들의 복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동티모르 유엔평화유지군부대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평가를 받았다.<sup>29)</sup>

한편 동티모르는 농업국가로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제한된 인구로 인한 협소한 시장여건과 자본, 기술력 미비 등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동티모르의 유전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경제 사정이 더욱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까운 장래 동티모르개발사

29) 주 동티모르 한국대사관, 앞의 자료, p. 24.

업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 2002년 5월 20일 동티모르 독립과 동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이홍구 독립경축 특사와 오르타 외교장관 간에 수교의정서 교환에 이어서 8월 8일, 대사급 외교관계로 승격시켰다. 양국간 교류 관계를 보면, 구스마오 대통령은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월드컵행사에 참석하는 등 4회에 걸쳐 방한했으며, 한국은 2002년 5월 이홍구 독립경축특사가, 2003년 4월 장영달 국회국방위원장이 상록수부대를 위문목적으로 각각 동티모르를 방문했다. 그리고 2002년 7월 새마을사업 지원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김문규 새마을 중앙회장이 동티모르를 방문했다. 그 외 2002년에서 2003년간 동티모르연수생 23명을 초청했다.

## 6. 결 론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역사적 배경과 인도네시아군의 동티모르 점령과정, 동티모르 사태와 독립과정, 유엔의 동티모르지원과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여한 상록수부대의 활약상, 그리고 동티모르 정세전망 등에 대해 고찰했다.

동티모르에 대한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주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언론매체와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작성된 정세보고자료 등에 의존했다. 특히 인도네시아군의 동티모르 공격작전에 대한 자료는 당시 이 작전을 진두지휘한 국방성 정보국장을 역임한 베니 무르다니 장군의 자서전 *Profile of A Soldier Statesman*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했다. 이 자료는 군 정보기관에서 작성된 신뢰성 높은 귀중한 내용으로서 당시 인도네시아군의 침공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동티모르는 450년간에 걸쳐 포르투갈 식민지로, 그리고 24년간 인도네시

아 지배에서 폭력과 내전으로 시달려 왔으며, 독립에 대한 민족적 의지와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독립을 이룩한 신생국가다. 한국은 동티모르 독립과정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으며,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국제적 지원을 얻어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록수부대를 파병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동티모르의 평화안정과 인도적 구호활동에 적극 기여했다. 더욱이 상록수부대가 동티모르 대민지원활동을 통해 심어놓은 한국군의 이미지와 그 온정의 손길은 오래토록 간직될 것으로 확신된다.

동티모르는 완전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와 경제적 자립능력이 미약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분야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우리 기업의 진출 또한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동티모르의 부존자원 개발이 본격화되고 인적자원과 관광자원 개발이 체계화되면 경제여건이 보다 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풍요한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티모르와 보다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록수부대가 주둔지를 중심으로 실시한바 있는 대민봉사활동 등 새마을사업 지원을 정부가 국익증진 차원에서 더욱 확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신생독립국, 동티모르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원고투고일 : 2005. 7. 15, 심사완료일 : 2005. 8. 9)

주제어 : 동티모르, 티모르, 인도네시아, 한국군파병, 상록수부대

<ABSTRACT>

## A Study on the East Timor Situations and the Achievements and Influences of the *Sangroksu* Unit

Seo, Se-ho

East Timor was under a Portuguese colonial rule for 450 years, and then under Indonesian control for twenty-four years. After a long history of violence and internal strife, East Timor demonstrated courage and resolve for self-rule and,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cently achieved independence.

The Republic of Korea (ROK), no less than any other country, has been committed to providing attention and support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East Timor. It has concerned itself with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East Timor and made active effort in enlisting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cause. Furthermore, ROK deployed the *Sangroksu* (is called Evergreen) Unit to help in East Timor's quest for independence, and thereby contributed to peacekeeping and humanitarian aid activities in East Timor. The compassionate image of the ROK Army, built through the *Sangroksu* Unit's civil assistance efforts in East Timor, is expected to endure long.

Despite being a fully independent state by law, East Timor is ill-provided in legal and political systems and economic self-reliance, and requires continuing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s manufacturing industry has not yet achieved an environment well suited to investment, so that it is difficult currently for Korean corporations to expand out to East Timor. But

once the nation's natural resources are actively utilized,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ourism become systematic, it is expected that economic conditions will mend greatly and East Timor will achieve considerable prosperity as well as national development.

ROK, with its limited natural resources, has sought a close relation with East Timor that is rich in natural resources. It is to be desired that ROK intensify its civil assistance projects in East Timor, such as what the *Sangroksu* Unit performed from 1999 to 2002 in the areas surrounding the unit station, and actively cultivate a bond of trust and cooperation with the newly independent nation of East Timor, for the advancement of both national interests.

Key Words : East Timor, Timor, Indonesia, ROK Military Deployment,  
*Sangroksu* Unit

K C I